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3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9,28ㄴ-3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9, 28ㄴ-36

어느 시골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근심하던 농부들은 성당으로 몰려가 신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비가 안와서 농사를 망칠지도 모릅니다. 제발 비가 오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이에 분당신부는 그 부탁을 들어주며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모두가 원하는 날짜가 있어야만 바로 그날 비가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비가 내려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한 청년이 “오늘은 안 됩니다. 오후에 친구들과 들에 나가서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부님이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하자 한 부인이 “안 됩니다. 내일은 빨래하는 날이거든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은?” “안 됩니다. 시장으로 소를 팔러 나가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그날은 제가 안 됩니다. 들판으로 풀을 베러 가는 날이라 비가 오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요일은요? 그러자 한 아가씨가 “그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날은 제 결혼식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요? 그러자 누군가가 “안 됩니다. 그날은 돼지를 잡아서 소시지를 만들어야 하는 날인데 햇볕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괜찮으신지요?” 그러자 일제히 소리치며 “토요일은 야외서커스가 있는 날이라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됐지만 이번 주에는 비가 내려도 좋은 날은 없군요!” 라고 신부님이 혀를 내두르자 모두들 “그렇지만 비는 꼭 내려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농작물이 자라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대답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원하는 날짜가 잡히면 그날을 정해서 비가 내리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고생과 오해, 시련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의 스승님이 계시니 지금까지의 시련도 앞으로의 고통도 다 체쳐두고 이곳에서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산, 당신의 제자가 배반자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 해골산...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나면 영원히 지지 않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둬 걱정 없이 겨울을 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사순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저 ‘이곳에... 지금의 즐거움에 머물고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저것 따져가며 어떻게든 희생과 고통을 줄여보려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모습에서 다시 땀투성이 얼굴로 변모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 그래도 내려가야 한다...” 영광이 가득한 산에서 내려와 고통과 희생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불분명한 앞길을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앞을 밝히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삶을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맞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며 남은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다함께 기도합시다.

(수원교구 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2월 13일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동안 매주 금요일에 있는 십자가의 길 기도와 미사에 정성껏 참여하고 '사순절 신앙생활 실천표'를 잘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신명기 29-34장

1. 다음 성경구절 읽고 다음 질문에 맞는 답에 O표, 틀린 답에 X표를 하시오.

신명 30,11-14 :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 (1)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
- (2) 하늘에 있는 것이다 ()
- (3)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
- (4) 말씀은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다 ()

2. 신명 31,1-6을 읽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격려의 말을 요약하시오.

(답:)

3. 신명 31,7-8을 읽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격려의 말을 요약하시오.

(답:)

4. 신명 31,23을 읽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의 말을 요약하시오.

(답:)

5. 32,48-52을 읽고 다음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코 맞은 쪽,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형 ()이 호르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내가 올라간 산에서 선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무리밧 카데스 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

6. 다음은 신명 34장에 나타난 모세에 대한 설명들이다. 읽고 모세에 대한 바른 설명들을 모두 고르시오.

(답: , ,)

- (1) 모세가 죽음을 맞은 곳은 모압땅의 느보 산이다.
- (2)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
- (3) 모세가 죽을 때는 나이가 백 스무 살로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진하였다.
- (4) 모세가 후계자로 안수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 차고 이스라엘이 모두 그의 말을 들었다.
- (5) 모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사귀던 사람이었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의 임무를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신명 31,23)"고 격려하십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마태 28,20)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네...
정수 정현 현곡 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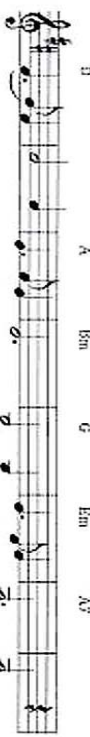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이!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잊을 무 야

우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잊을 무 야



중 - 기 하 고 감사하 자 세 상 모든데 게

중 - 기 하 고 감사하 자 세 상 모든데 게



마 음 보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르

마 음 보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르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